

조선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미국의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최고 수준

2013. 5. 06

조선/기계

Analyst 박무현

02.3779-8967

bossniceshot@etrade.co.kr

주요 에너지기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를 강조

주요 에너지기구들의 올해 석유 전망은 모두 생산량 증가폭이 소비량 증가폭을 상회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높은 생산량 증가는 유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원유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이유이다.

미국의 지난 달 원유 생산량은 730만배럴/일 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세계원유생산량의 8.5% 수준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에 해당된다. 미국이 세계 원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11% 수준에서, '01~'02년에는 7~8% 수준으로, '05~'08년 4~5%까지 감소했었다. '09년 이후 미국에서 석유채굴을 위한 장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Light Tight Oil 의 생산량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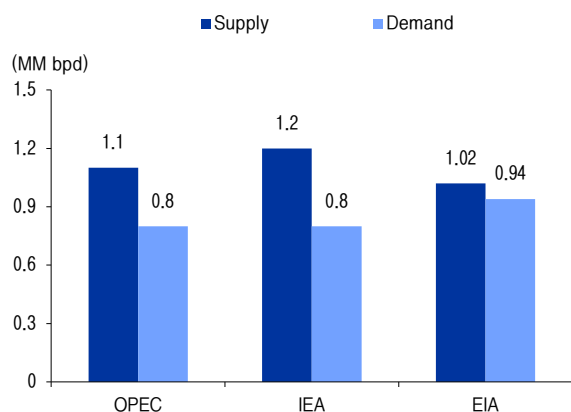
주요 에너지기구들은 2020년이면 미국의 하루기준 원유 생산량은 1,100만배럴/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높아지는 유가 하락압력과 불안한 해양플랜트 전망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계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가을부터 소폭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는 하방경직성을 보이면서 지난주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외 산유국들의 감산정책은 유가 하락압력을 상쇄시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가가 더 이상 추가 상승할 확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란 점이다.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동안 유가 하락압력 상쇄를 위해 OPEC의 감산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어렵다. 감산은 곧 재정수입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요 에너지 기구들의 유가전망은 지난해 가을 이후 점차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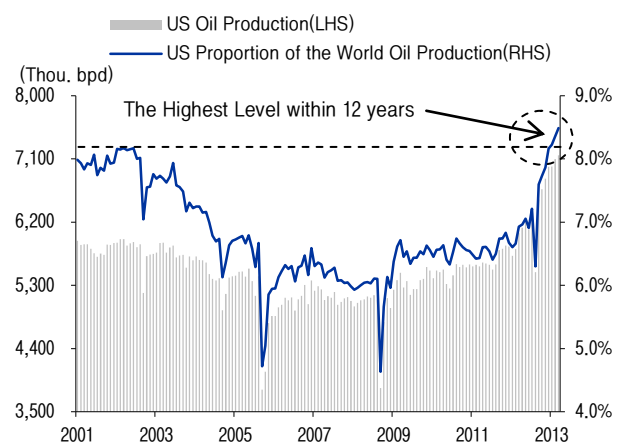
미국의 원유생산량 증가는 유가 하락압력을 점차 높이게 될 것이며 이는 깊은 바다에서 힘들게 원유를 시추하려는 해양시추시장에 대한 매력을 점차 낮추게 될 것이다. 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함께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림1] 2013 Incremental Crude Oil Supply vs. Demand Estimates



자료: Bloomberg,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Historical US Oil Production



자료: EIA,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무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적용기준(향후12개월)
Sector(업종)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Report(기업)	Strong Buy (강력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50% 이상 기대
	Buy (매수)	절대수익률 기준 15%~50% 기대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절대수익률 기준 -15%~15% 기대
	Sell(매도)	절대수익률 기준 -15% 이하 기대
	N.R.(Not Rated)	등급보류